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애욕품(愛欲品) ④

若覺一切法 若覺一切法 能不着諸法 能不着諸法 一切愛意解 一切愛意解 是爲通慧意 是爲通慧意 시위통상의

만약 모든 법을 깨달아 능히 온갖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애욕에서 풀려나리니 이는 성스런 뜻에 통한 것이다

衆施無勝 衆施無勝 衆味無勝 衆味無勝 衆樂無勝 衆樂無勝 衆苦無勝 衆苦無勝 중시경시승 중미도미승 중락법락승 애진중승고 애진중승고

모든 보시중 법보시가 으뜸이고 온갖 맛중에 도의 맛이 으뜸이며 모든 즐거움 중에 법락이 으뜸이다 갈에 다하면 온갖 괴로움을 이겨낸다

恩以貪自縛 恩以貪自縛 不求度彼岸 不求度彼岸 우이탐자박 불구도피안

탐욕은 남과 나 헤치는 망하는 자리 그 결박 푸는게 수렁서 벗어나는 길

貪爲敗處故 貪爲敗處故 害人亦自害 害人亦自害 탐위패치고 해인역자해

어리석은 이 탐욕으로 저를 묶고 피안에 건너는 것 구하지 않는다 탐욕이란 망하는 자리인 까닭에 남을 해치고 저를 해친다

愛欲爲田 愛欲爲田 姪怨爲種 姪怨爲種 故施度世者 故施度世者 得福無量 得福無量 애욕의위전 음원치위종 고시도세자 득복무유량 득복무유량

갈에 욕망은 의식의 밭으로 삼고 음욕 원망 어리석음을 종자로 삼으니

그러므로 세상 건넌 이에 보시하면 그 복록이 헤아릴 수 없으리라

伴少而貨多 伴少而貨多 商人恃揚權 商人恃揚權 嗜欲賊壽命 嗜欲賊壽命 故慈不貪欲 故慈不貪欲 반소이화다 상인척착구 기욕적해명 고태불탐욕 고태불탐욕

길동무는 적은데 재화 많으면 상인은 근심하고 두려워 한다 욕심 줄기엔 목숨 해치는 적

고로 지혜로운 이 탐욕하지 않는다

心可則爲欲 心可則爲欲 何必獨五欲 何必獨五欲 適可絕五欲 適可絕五欲 是乃爲勇士 是乃爲勇士 심가즉위욕 하필독오욕 도적외오욕 시나위용사 시나위용사

마음에 좋다는건 곧 욕심이 된다 어찌 오욕 뿐이라 좋다는 생각 버려 오욕 끊으면 이것이 바로 용사가 되는것

無欲無畏 無欲無畏 恬淡無憂患 恬淡無憂患 欲除使結解 欲除使結解 是爲長出淵 是爲長出淵 무욕무유외 환담무우환 욕제사결해 시위장출연 시위장출연

욕심 없으면 두려움 없고 마음 고요하고 맑으면 우환없다 욕심 없애 그 결박을 풀면 이것이 길이 수렁에서 벗어나는 것

欲我知汝本 欲我知汝本 意以思想生 意以思想生 我不思想汝 我不思想汝 욕이지여본 의이상상생 의사상생 의사상생

則女而不有 則女而不有 죽여이불유

욕심아! 내가 네 뿌리를 안다 의식은 상념에서 생기는 것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는 곧 있음이 아니라

伐樹勿木 伐樹勿木 樹生諸惡 樹生諸惡 斷樹諸株 斷樹諸株 比丘滅度 比丘滅度 벌수물휴 수생제악 단수진주 비구멸도 비구멸도

욕심의 나무 베기를 잊지말라 그 나무는 온갖 악행을 낳나니 나무를 베어 뿌리까지 없애면 그 비구는 멸도에 들리라

夫不伐樹 夫不伐樹 少多餘親 少多餘親 心繫於此 心繫於此 如繫求母 如繫求母 부불파수 소다여친 심계어차 러구모부 러구모부

무릇 욕심의 나무를 베지 않아 조금이라도 미련이 남는다면 마음은 바로 거기에 매이니 어린 송아지 부모 찾듯 하리라

龍眼

월인스님 (월명암 조실)

월명암 앞뒤로 봄꽃이 환하게 피어 극락의 정취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월명암은 월명각사가 이승의 몸을 그대로 가지고 승천의 이적을 시험한 곳이고 바로 이웃한 묘적암은 그의 아내되는 부설거사가 부부의 인연을 맺고 함께 수행한 묘화보살을 위해 지은 초막 암자입니다. 이 모두가 저 먼 신라시대의 이야기이고 그때의 흔적이란 찾아 볼 수도 없지만 아직도 그들의 지그한 수행이야기는 생생히 전해오고 있는 도량입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들듯 이 도량의 세월속에 그들의 이야기는 단절될 없이 전해지며 공부하는 이들의 귀감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봄꽃 만발한 묘적암에 달이 떠오르고 소쩍새가 하염없이 울어대는 밤이면 정발 묘적(妙寂)의 신묘한 소식이 전해오는 듯합니다. 무상(無上)의 법을 닦는 사람에게는 도량의 좋고 나쁨이 있을 수 없겠지만 나는 이 월명암 묘적암과 별난 인연이 있습니다. 무상한 세월 속에 여든 아홉의 나이에 이르도록 이 도량과 정발 깊은 인연을 맺으며 살아 왔습니다.

세상 살기가 어렵다는 말을 풍문에 듣고 앉아 있는 와중에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이 노남(老納)에게 촌설(寸說)을 청하니 거절할 수도 없거니와 달리 잘난 말 한마디를 전할 때도 쌓지 못했음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 살아 온 이야기를 들려드리지요. 형여 그 속에 먼지처럼 묻어 있는 부처님의 가피가 있거든 그걸 버리지 말고 갈무리해 수행의 거름으로 써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긴 경술년에 전라북도 능주, 지금의 화순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누구나 그랬듯이 참으로 어려운 유년시절을 보냈지요. 선친께서는 삼천리 명산을 찾아 다니며 남들이 알지 못할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다보니 집안 살림은 말할 수 없이 기울었고 마침내 선친께서 금강산에서 타계하시니 그나마 밭을 잃던 살림살이가 파탄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위로 두 형님들은 어디론가 떠나갔고 어린 나는 모친을 의지해 의가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열두어 살때부터 지계를 지고 산을 다니며 나무를 하는 신세를 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도 산에 오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계를 지고 산꼭대기를 올라 사방을 둘러 보는 것이 내 가난한 어린시절을 지켜준 유일한 재미였습니다. 나는 산꼭대기에서 하늘을 향해 소망을 말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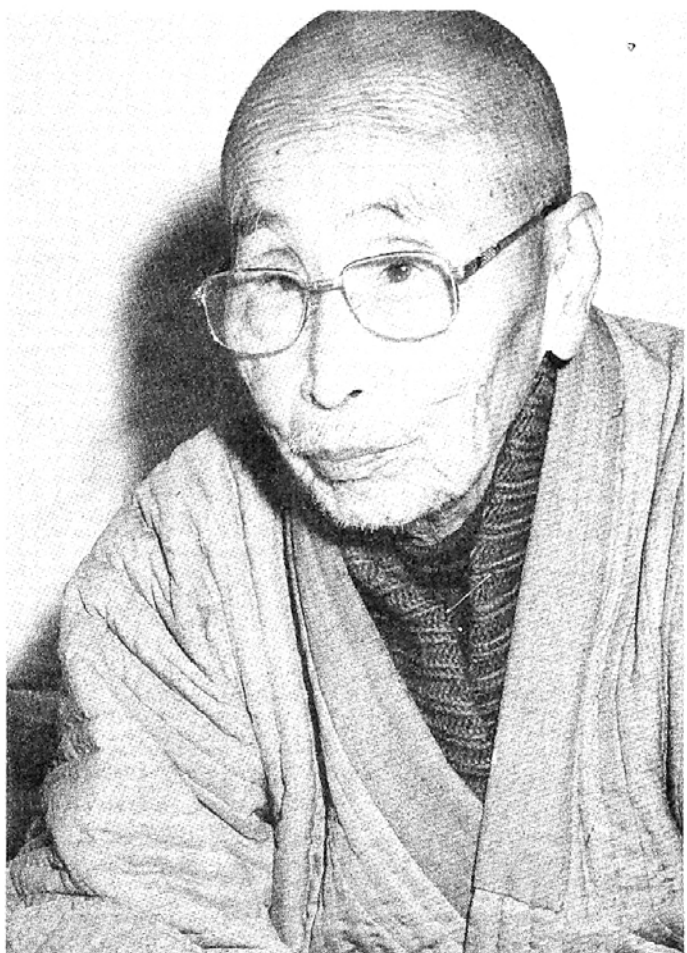
"나는 이렇게 어려운 세상살이를 하지

않고 산에 들어가 도를 닦고 싶습니다." 무슨 도를 어떻게 닦으리란 다짐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선친의 피가 내 몸에 흐르는 탓이었는지 어린 나이에 가난이 싫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의 발원이 있어 지금껏 승단의 한편에서 불은(佛恩)을 추내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외가살이를 하다가 스무살이 넘어서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시계고치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계란 귀한 것이어서 고걸 주무르며 고치고 다니는 일은 신나는 일이었지요. 시계고치는 연장을 손가락에 넣고 전국을 떠돌아 다닐 수 있다는 것도 신명나는 일이었습니다. 내 기술로 내 밥을 해결하니 남에게 구차하게 손 벌일 일도 없고 내 가고 싶은 곳이 바로 나의 행선지이니 누구에게 길을 물을 것도 없었지요. 주로 복록을 많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선친이 공부하다 이승인연을 마감했다는 금강산도 돌아다니고 보현산도 돌아 다녔지만 그래도 만주 땅을 가장 오래 쫓다녔습니다. 그곳에

『약력』

- 1910년 전남 회순 생
· 1945년 전북 보석사로 출가
· 화엄사 월명암 달마산 도굴등에서 선수행
· 現 전북 부안 월명암에 주석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참으로 중노릇 잘할 수 있다” 은사스님 가르침의 전부

서는 일제의 병기를 들고 삼상의 정장으로 끌려갈 험난한 팔자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주를 돌아다니다가 돌아 온 조국 땅에서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 해에 불문(佛門)으로 들어서 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소망했던 것이 늘 가슴에 들어차 있었기에 서른다섯이 되도록 부부의 인연을 맺을 여지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언젠가는 산문으로 들어가 사람이 한 여자의 일생을 반쪽으로 잘라놓고 떠나버릴 수는 없다는 생각이 즉 있었던 게지요. 출가사찰인 전라북도 보석사에서 서

리만 짝은 셈입니다. 정선(正善)스님이 머리를 깎아준 은사스님인데 이듬해 화엄사로 나를 보내며 “아무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참으로 중노릇 할 수 있다”는 말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불문 그 가르침도 나는 평생을 귀하게 받들고 있고 지금 머리를 깎으려는 이들에게도 “정녕 하마의 걸림이 없는 삶을 구할 자신이 있느냐”고 묻고 싶습니다. 화엄사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참선도 하며 지내다가 서울에서 정화불사가 대단고도 모두를 모여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화불사가 끝날 무

렵에 서울로 올라 갔는데 나는 실망했습니다. 정화불사는 갑오년(1954년)에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를 촉매로 시작되었던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나는 그 다음 해 초가을에 조계사로 갔습니다. 이미 많은 절에서 대처승들이 물러난 뒤였습니다. 조계사 앞뜰에 모인 스님들이 여기저기서 무리를 지어 수군 거리는데 그 내용은 지방의 절들은 많은데 비구들의 수는 적어 서로 절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정화를 했으니 절을 인수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때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해명을 바로 잇고 법통을 온전히 이어가기 위한 정화였는데 종국에는 무리를 지어 좋은 절들을 차지하려고만 하는 것이 이 촌사람에게는 그리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마땅히 갈 곳도 없고 여비도 없어서 대각사에서 한달 가량 있었는데 대접을 잘 해 주더군요. 한 도반이 찾아와서 나를 보더니 “스님은 왜 여기 있으시요?” 하더

한국불교 縮譯 韓國大藏經

Advertisement for the Korean Buddhist Canon (Korea Great Canon) featuring images of the books and their packaging.

누구나 동참하여 성취하여야 할 한국불교의 꿈!! 팔만사천법문 12권 축역 사단법인 한국불교금강선원 부설 불교정신문화원에서는 팔만대장경을 알기 쉽게 축역하여 다음 열 두권으로 출간합니다. 같은 종류의 경전들 가운데 반복된 말을 빼고 간단명료하게 정리하므로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dvertisement listing the 12 volumes of the Korean Buddhist Canon and the translators involved, including names like An Deok-am, Song Gil-ju, and other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publisher, including the phone number T. (02) 774-1061 and the name of the publisher, 불교정신문화원사업부.